

KWDI

해외통신

2019년 9월 1차 (2019.9.1 ~ 9.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통계청, 여성의 저임금 근거리 직장 선호가 성별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발표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지난 9월 4일,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직장 출퇴근 시간이 길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를 담은 ‘통근 시간과 임금의 성별 격차(Gender differences in commute time and pay)’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영국의 시간 임금 연간 조사(Annual Survey of Hours and Earnings, ASHE) 자료를 바탕으로 임금과 통근 시간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통계청은 ASHE에 포함된 직장인의 집과 직장 주소 정보를 활용, 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직장까지 걸리는 통근 시간을 각각 계산했다.

연구 결과, 육아 부담이 큰 여성은 임금이 낮더라도 집과 가까워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고, 반대로 남성은 출퇴근 시간이 길더라도 급여가 더 높은 직장을 택해 ‘커뮤팅 갭(commuting gap)’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임금 격차가 영국 사회의 큰 관심사인 상황에서 통근 시간이 남녀 임금 격차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 연구를 통해 증명된 셈이다. ‘커뮤팅 갭’은 여성이 임금이 낮더라도 집과 직장이 가까워 통근 시간이 짧은 일을 택하고, 남성은 통근 시간이 길어도 급여가 높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뜻한다.

여성도 임금이 더 낮더라도 통근 시간이 짧은 직장을 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육아’ 때문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여성의 통근 시간이 남성보다 짧아지는 커뮤팅 갭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30세부터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영국 여성이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에 출산을 경험하고 30세 무렵 육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육아가 커뮤팅 갭의 변수라는 것이다. 영국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영국 여성이 첫 아이를 갖는 평균 연령은 28.8세다.

연구진은 남녀의 차량 소유 여부도 커뮤팅 갭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17년 영국에 등록된 전체 차량 중 여성이 소유한 차량은 전체의 3분의 1로, 남성 차량 소유주가 더 많았다. 즉, 차보다 통근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대중교통에 여성이 더 많이 의존하고 있어 남성보다 출퇴근 시간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National Statistics (2019.9.4)
“Gender differences in commute time and pay”,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arningsandworkinghours/articles/genderdifferencesincommutetimeandpay/2019-09-04>
(검색일: 2019.9.9)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9.9.4)
“The commuting gap: women are more likely than men to leave their job over a long commute”,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arningsandworkinghours/articles/thecommutinggapwomenaremorelikelythanmentoleavetheirjoboveralongcommute/2019-09-04>
(검색일: 2019.9.9)

성별 임금 격차 줄이기는 영국 정부의 주요 정책 화두 중 하나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직원 25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남녀 성별 임금 격차 공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펴는 등 남녀 임금 격차를 좁히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 영국 통계청의 이번 연구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통근 시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직장을 택하는 이유가 결국 육아와 연결된다는 점을 발견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앰버 러드 영국 여성평등부 장관은 9월 4일 발표된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통계는 여성이 육아 부담 때문에 더 높은 급여와 직장에서 성장할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와 기업들이 여성이 부모와 직장인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GOV.UK (2019.9.4)
“Women pick jobs closer to family over bigger salary - as government promises to help them reach their financial potential”,
<https://www.gov.uk/government/news/women-pick-jobs-closer-to-family-over-bigger-salary-as-government-promises-to-help-them-reach-their-financial-potential>
(검색일: 2019.9.9)

스웨덴 SWEDEN



스웨덴, 성인지적 관점 반영한 페미니스트 무역 정책 발표

홍희정 울산대학교 젠더연구센터 객원연구원

2019년 8월 15일 스웨덴 외무부 안 린데(Ann Linde) 장관은 스톡홀름 패션 위크 트레이드(Fashion Week Trade)에 참석하여 페미니즘 무역과 패션 산업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스웨덴 최대의 패션 행사인 패션 위크 트레이드는 스웨덴과 유럽 패션의 최신 동향 등을 제시하여 관련 업계의 관심이 높으며, 이번 행사에도 패션 산업 전문가를 비롯하여 업체 CEO, 관련 학회장 및 기관장 등 다양한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안 린데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 스웨덴의 패션 산업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출 산업의 하나이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 산업 내부에는 수출입과 관련한 유통, 관세, 그리고 소비자 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에 대한 대우 등에서 남성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등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가령 미국 무역 위원회(National Board of Trade)의 최근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여성 실크 블라우스는 남성 실크 셔츠 대비 6배, 여성 스포츠 웨어는 남성 스포츠 웨어 대비 3배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등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함을 강조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페미니스트 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기존 남성 중심의 무역 시장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참고자료

- AFTONBLADET(2019.8.2),
“Varför är tullen högre på kläder för tjejer?”,
<https://www.aftonbladet.se/debatt/a/y3GnwK/varfor-ar-tullen-hogre-pa-klader-for-tjejer>
(검색일: 2019.8.26.)
-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9.9.5),
“Feminist Trade Policy”,
<https://www.government.se/information-material/2019/09/feminist-trade-policy/>
(검색일: 2019.8.25.)
- Government Offices of Sweden(2019.8.15.),
“Minister for Foreign Trade Ann Linde to discuss feminist trade policy at Fashion Week Trade”,
<https://www.government.se/press-releases/2019/08/minister-for-foreign-trade-ann-linde-to-discuss-feminist-trade-policy-at-fashion-week-trade/>
(검색일: 2019.8.27.)

이에 스웨덴 정부는 최근 2014년부터 시행한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에 이어 2019년 9월 페미니스트 무역 정책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페미니스트 무역 정책은 크게 6가지이다. 첫째, 무역협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역 협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에서 남녀가 동일하게 혜택 받고,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젠더적 시장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무역 협정 및 관련 정책을 수립 할 때 젠더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둘째, 성인지적 관점에 따라 페미니스트 무역 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기존의 무역 정책은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불리한 관세를 적용 받는 등의 문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혜택과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우선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셋째, 단일시장(Single market)에서의 성평등이다. 단일시장에 포함되는 모든 기업가, 소비자, 직원 등에 대한 성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서비스 거래의 단순화를 통해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함에 있어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다양한 무역 활동에서 성별 균형적인 대표단의 구성이다. 기존의 무역 분야는 절대 다수의 남성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므로 남성 중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여성 기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여성만을 위한 대표단을 구성하여 여성들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당하게 성평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섯째, 저소득 국가의 무역과 일에 대한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소득 국가일수록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이 약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종사할 가능성이 크므로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여성 종사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여섯째, 무역 분야에 특화된 체계적인 성별 분리 통계가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무역 분야 성별 통계의 구축으로 국제 표준 제안서 개발을 가속화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성평등 관점에서의 무역 정책 추진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The Local(2019.8.2),
 "Sweden to invest in 'feminist trade policy'",
<https://www.thelocal.se/20190802/swedish-minister-calls-for-feminist-trade-policy>
 (검색일:2019.8.25.)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무역 추진은 남녀 간 차별 시정을 넘어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스웨덴의 노력에 대해 인근 국가 뿐 아니라 세계 각 국의 관심도 높다. 만약 스웨덴의 도전이 성공을 거둔다면 성평등 정책이 새로운 이윤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성평등을 지향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좋은 롤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아동성범죄 조장 우려가 있는 아동형상 리얼돌 구매 무죄판결 논란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 최근 캐나다에서 리얼돌(sex doll)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구체화 되고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리얼돌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리얼돌이 아동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규제를 취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6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최초 판례가 지난 5월 내려진 바 있다.
- 2013년 캐나다의 뉴펀드랜드 앤 라바도르 주에서 50대 남성 케네스 해리슨은 온라인으로 리얼돌을 주문하였는데 이 인형이 일본에서 배송되어 오는 과정에서 적발되어 경찰이 해리슨을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체포한 사건이 있었다. 주 법정이 채택한 의학 전문가는 해리슨이 구매한 인형이 명백히 아동의 신체를 묘사하고 있으며 해리슨이 인형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성적인 것이므로 검찰이 주장한 대로 해리슨에게 아동 포르노 소지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6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5월 주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것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이 피고가 아동의 모습을 한 인형을 구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또한 해리슨에게 부과된 다른 혐의들, 즉, 음란물 배송죄, 금지된 물품의 밀수 및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을 선고하였다.
- 6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해리슨은 자신이 인형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으나 아동의 모습을 한 인형을 주문하지 않았고, 대신 어려서 죽은 자신의 아들을 대신할 자신의 동반자를 마련하고자 구글을 통해 리얼돌을 검색한 후 검색된 인형들 중 1986년에 죽은 아들이 청년이 된 모습을 상상하여 그와 비슷한 남성형의 얼굴을 가진 성인 여성 인형을 선택하여 주문하였다고 증언했다. 이에 덧붙여 해리슨의 변호인 측은 해리슨이 주문한 것은 실제 아동이 아닌 인형일 뿐이므로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가 리얼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의문시하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해 왔다.
- 이에 대해 아동단체들은 해리슨의 혐의는 명백한 아동포르노 소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변호인들을 소아성애자 옹호자들로 격하게 힐난해 왔으며, 아동의 모습을 한 리얼돌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소아성애의 공공연한 표현이며 향후 실제 아동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 한편 리얼돌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캐나다에서는 해리슨 사건과 같은 사례 또한 빈번해지고 있다. 캐나다 당국은 리얼돌의 형태, 특히 가슴과 성기 부분의 특징이 아동의 형태를 띠고 있을 경우에 인형의 소지자들에게 아동포르노 그래픽 소지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해리슨 사건의 경우와 같이 리얼돌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 주문자가 아동 형상의 인형을 소지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2018년 말 캐나다 국경 수비대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 까지 42개의 아동의 형상을 한 리얼돌을 적발하였으며, 이 인형들의 가격은 최소 50캐나다달러에서 8000캐나다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CBC (2019.5.23.),
"Sex doll is child porn, but judge finds Kenneth Harrison not guilty",
<https://www.cbc.ca/news/canada/newfoundland-labrador/kenneth-harrison-not-guilty-1.5146259>
(검색일: 2019.9.1.)
- CBC (2018.12.12.),
"Dozens of child sex dolls seized by Canadian border agents",
<https://www.cbc.ca/news/politics/cbsa-border-child-sex-dolls-1.4941213>
(검색일: 2019.9.1.)
- CBC (2017.7.7.),
"What's in the box? Sex doll could be adult not child, lawyer says",
<https://www.cbc.ca/news/canada/newfoundland-labrador/sex-doll-child-adult-harrison-collins-payette-1.4194975>
(검색일: 2019.9.1.)
- Toronto Sun (2018.9.9.),
"NICE SKIN: What it's like inside a sex doll rental business",
<https://torontosun.com/news/local-news/nice-skin-what-its-like-inside-a-sex-doll-rental-business>
(검색일: 2019.9.1.)

아동 모습의 인형 외에도 캐나다에서는 몇 년 전부터 리얼돌을 가지고 집창촌을 운영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 또한 있었다. 페미니스트들의 격렬한 반대와 시 당국의 주저에도 불구하고 광역 토론토 노스욕 시는 리얼돌을 이용한 성매매를 규제할 적절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현재 토론토에서는 리얼돌을 이용한 집창촌이 2018년부터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다.

네덜란드 NETHERLANDS

네덜란드 벤처전문 투자기업들, 여성 35% 이상인 스타트업에 한해 자금지원 계획 발표

곽 서 희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지난 7월 네덜란드 내 Keen Venture Capital를 비롯한 25여개의 벤처 전문 투자기업들은 직원의 최소 35% 이상이 여성인 벤처기업에게만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¹⁾. 이번 계획에 뜻을 함께한 25개 기업이 관리하는 투자 자본은 약 11억 유로(한화 약 1조 4,4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네덜란드 내에서 진행되는 벤처 투자 총 자산 액수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같은 여성 중심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추진되게 된 데는 투자기업 두 곳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성 기업가 스타트업(startups)에 대한 연구 결과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남성이 설립한 스타트업에 투자했고, 여성이 설립한 스타트업에 투자한 비중은 전체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이니셔티브에 동참하는 한 투자기업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대해 “여성 기업가 대상 투자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벤처기업 내 여성 직원 비율이 35% 보다 낮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는 “참여하는 투자기업들이 이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니셔티브 수립에 관여했고, 네덜란드 스타트업 홍보대사(Dutch startup ambassador)로 활동하고 있는 콘스탄테인 네덜란드 왕자(Prince Constantijn of the Netherlands)는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여성 기업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역량을 갖췄는지, 집안일과 일을 잘 병행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내용이 제기되는 반면, 남성 운영자는 대개 향후 계획 및 열정을 기반으로 평가 받는다”면서, 비즈니스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적 편견에 대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Dutch News (2019.7.10), “Venture capital groups will only fund companies with at least 35% women”, <https://www.dutchnews.nl/news/2019/07/venture-capital-groups-will-only-fund-companies-with-at-least-35-women/> (검색일: 2019.9.13.)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Supporting ambitious entrepreneurs and startups”, <https://www.government.nl/topics/enterprise-and-innovation/supporting-ambitious-entrepreneurs-and-startups> (검색일: 2019.9.13.)
- NL Times(2019.7.10.), “Dutch Investors to only support companies with female execs”, <https://nltimes.nl/2019/07/10/dutch-investors-support-companies-female-execs> (검색일: 2019.9.13.)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젝트 등을 기획하는 Impact Hub Amsterdam에서 마케팅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헨리케 슬롭(Henrike Slob)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최근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성별 자본 접근성이라고 지적했다. 남성 스타트업 설립자에 비해 여성 설립자들은 투자자본 유치 접근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다. 또한 이번 투자기업들이 발표했듯, 여성 기업가 또는 남녀 직원 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춘 스타트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 실제 이행된다면, 이는 분명 양성평등과 같은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발표한 25곳의 투자기업들이 네덜란드 내 벤처 투자 총 자산 규모의 약 1/4에 해당한다는 점도 의미 있지만, 투자기업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해당 업계에 존재하는 성비 불균형에 주목했다는 점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네덜란드 스타트업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1) 한국에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참고로 한국에서 이를 관할하는 정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인데, 영문명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이다. 원 자료들에서도 같은 내용인데 두 용어가 번갈아 사용되었으며, 본 원고에서도 자료에 맞춰 작성하였다.

독일 GERMANY



독일, '임금공개법' 시행 이후 첫 보고서 발표

체 헤 원 독일통신원

지난 2017년 3월 30일, 독일 정부가 '임금구조 투명성 증진을 위한 법안 (Entgelttransparenzgesetzes, 이하 임금공개법)'을 시행한 이후 첫 보고서가 발표됐다. '임금 공개법'은 그간 돈이나 임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독일 문화를 깨고 개인 요구에 따라 동료 임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2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직원 개인 요구가 있을 시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임금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직원의 정보 요청은 근로자 대표협의회를 통해 이뤄지며, 만약 협의회나 임금 협약이 없는 직원의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직접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한 사기업은 동일 임금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경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안 제23조에 따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임금공개법의 효과를 평가해 공개해야 한다.

참고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 7.10), "Bericht der Bundesregierung zur Wirksamkeit des Gesetzes zur Förderung der Entgelttransparenz zwischen Frauen und Männern", <https://www.bmfsfj.de/entgelttransparenzbericht> (검색일: 2019.9.9.)

이번에 처음 발표된 보고서를 통해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동일임금 확인을 위한 정보 확인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이용되고 있지만, 회사들이 임금 구조를 검토하는 비율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법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효과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의 45%가 법률 도입 후 자발적으로 회사 임금 구조를 검토했다. 직원 수가 201~500명인 기업은 43%가 회사 임금 구조 검토 작업에 참여했다. 동일임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여전히 낮았다. 현재까지 2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임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경우는 4%에 그쳤다. 한편 동일임금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 의무가 있는 기업 중 44%가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40%는 여전히 그렇게 할 계획만 있다고 밝힌 상태로 나타났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법안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법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 마련 ▲정보 공개 절차를 단순화하고 공개 정보 범위를 넓혀 정보 가치를 높이는 조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와 요구 사항을 마련할 계획인 점도 밝혔다.

또한 독일 연방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임금 공개’만으로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데, 평등한 직업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임금공개법 외에 더 많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전략은 ‘사회 복지 영역 처우 개선’ 및 ‘수학·정보통신·자연과학·공학(MINT) 영역에 대한 여성 고용 확대’다. 연방 정부는 “공정한 임금과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임금 협약 등으로 사회 복지 분야의 약 80%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수학·정보통신·자연과학·공학(MINT) 영역에는 더 많은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직업 선택 문화를 계속해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두 번째 전략은 ‘민간 및 공공 부문 고위직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법률(FüPoG)’강화다.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남녀 임원직 비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2015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앞으로 공공부문 고위직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방 정부는 일·가족 양립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 제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프란치스카 기파이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의 공정한 임금구조는 널리 이야기되는 주제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이 남녀 동일 임금 구조를 갖추는 것이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첫 번째 보고서에서 나온 권장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향후 추가 논의 과정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9월이나 10월 내에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를 열고 향후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에 처음 발표된 임금공개법에 대한 보고서는 필요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19.9.13.), “Gesetz für die gleichberechtigte Teilhabe von Frauen und Männern an Führungspositionen”, <https://www.bmfsfj.de/bmfsfj/service/gesetze/gesetz-fuer-die-gleichberechtigte-teilhabe-von-frauen-und-maennern-an-fuehrungspositionen/119350> (최종 검색일: 2019.9.9)